

(1) 교육활동

초기 청년단체가 가장 주력한 사업 가운데 하나는 대중교육 부문이었다. 일제시기 조선인의 문맹률이 90%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학교마저 부족하여 1920년대 초부터 학령기 청소년의 입학난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순천의 교육시설도 극히 불충분하여 1920년대 초까지 설립된 공립보통학교는 순천공보(1911. 6.)·낙안공보(1917. 10.)·황전공보(1921. 2.)·광천공보(주암면 소재, 1921. 9.)·별량공보(1922. 10.)에 불과했다.(괄호 안은 설립 시기) 1920년대 후반까지 공립보통학교는 14개 면에 10개소가 설립되어 약 2,200명의 아동을 수용하였고,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사립순천매산학교·매산여학교 중등과가 있을 뿐이었다.

순천군의 보통학교 학생수를 당시 조선인 호수와 대비해보면 10호당 1명의 비율에 불과했다.(일본인 아동을 위한 순천공립심상소학교 학생수를 순천학교조합원 호수와 대비하면 1.3호당 1명)¹⁾ 더욱이 학령 초과, 학자금 사정 등으로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청소년도 많았다. 따라서 청년단체의 교육사업은 청소년의 이해를 반영한 실천형태였으며, 지식청년이 다수 모여 있는 청년단체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펼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했다.

1921년 4월 1일 순천청년회 제2회 정기총회에서는 청년야학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수개월에 걸친 준비 끝에 같은 해 11월부터 야학이 문을 열었다. 야학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지역의 야학과 마찬가지로 글과 숫자를 깨우치고 초보적인 일본어와 한자를 약간 익히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야학에 몰려든 청년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기는 무척 높았다. 『동아일보』 1922년 1월 21일자 보도에는 “각 강사의 열성과 일반 학생의 정근(精勤)은 많이 놀랄 만하다.”고 하였다. 1922년 4월 순천청년회 제4회 정기총회는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해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 강습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강습소 설치에 재정문제에 부딪쳐 여의치 않았던 듯하다. 이무렵부터 순천청년회의 총회, 임원회에서 의견금 징수문제를 거듭 논의하는 것도 강습소 설립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1924년 1월에 이르러서야 승평학원 설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1923년 10월 13일 순천청년회관에서 남녀 청년 70명이 모인 가운데 순천영어학습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영어학습회는 “신사상 연구의 첩경을 열기 위해” 조직되었다. 당시 순천청년회 총무였던 박승봉이 임시의장이 되어 회합을 이끌어갔다. 학습회 간부는 회장 박승봉, 부회장 박석규(朴碩圭), 서기 유목룡(兪穆龍)으로 구성되었다. 회원자격은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소지자로 제한되었다. 회원은 남자반과 여자반으로 나누어 1주일에 3일씩 순천청년회관에 모여 학습하며, 박승봉이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청년단체는 1922년 이래 순천중학교 혹은 순천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벌어진 민립대학설립운동에도 참여했다. 특히 순천청년회는 민립대학기성회 순천지방부 설립의 산파역을 담당했으며, 1923년 6월 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민립대학기성운동에 동참할 방도를 강구하였다. 그들은 선전부 위원을 선정하여 각 면에서 민립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선전한 다음, 각 면 유지대표를 소집하여 민립대학기성회 순천지방부 조직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하기로

1) 染川覺太郎, 앞의 책, 58~59쪽. 1928년경 순천군의 조선인 호구수는 2만 1,801호, 11만 4,588명이었고, 순천학교조합은 순천면과 도사면의 일본인 250호로 구성되었다.

민립대학기성회 순천지방부의 구성

임 원	지 역	집행위원
위 원 장 : 김학모	낙안면	김우약, 김상언, 조제백, 한길수, 배장주
	도사면	허 오, 이영배, 이근성, 오경지, 정재수
부위원장 : 서병규	동초면	김병욱, 윤성원, 한상기, 김재창*, 안중승
	별량면	차관홍, 심의현*, 정영하, 박병선, 김학련*
감 사 : 노재승, 주상규	쌍암면	김현수, 조윤식*, 장기언*, 조광현*, 신철휴
	서 면	송돈희, 박병두*, 임태유, 박인석, 김병두
회금보관위원 : 김만평, 김봉각, 서병규	송광면	이창조, 이규상, 박병순, 조형섭, 김주권
	순천면	장효원, 우기환*, 김형남*, 박승봉*, 최양섭*
	외서면	한영수, 선영배, 서태석, 김낙진, 선진근
	월등면	유영록, 김채수, 유옥중, 장재열, 장기준
	해룡면	양기목, 임태봉, 배기옥, 이준호, 강상영
	황전면	강인회, 조충재, 박승봉, 황종익, 서병우, 선암사 서한영, 정상진, 송광사 김찬의, 임석진

비고 : *표는 청년단체 관계자.

출전 : 『동아일보』 1923. 6. 25.

하였다. 이날 선정된 선전부 위원은 송광면·주암면 김형남, 낙안면·외서면 최양섭, 상사면 김용석, 동초면·별량면 이충호, 도사면 정달조, 소라면 서병규, 서면 김석희, 쌍암면 우기환, 황전면·월등면 윤선중이었다. 순천청년회는 6월 17일 연자루에서 순천지방부 설립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군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청년회장 서병규의 개회사, 박승봉의 민립대학 설립에 관한 취지 설명이 끝난 후 순천지방부가 결성되었다. 당일 선출된 순천지방부 간부진은 앞의 표와 같다.

1923년 말 이래 민립대학기성회 활동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퇴조하는 가운데 순천지방부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순천중학 혹은 순천고보 설립운동도 자금문제에 부딪쳐 1930년대 중반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